

## 【 주간이슈 】

## 보험산업의 지급수단 다변화, 왜 필요한가?

최형선 부연구위원

- 경제가 성장하고,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현금 대응 지급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보험산업의 이들에 대한 활용정도는 제한적임.
  - 현금이외에 각종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이 이용되고 있음.
  - 현재 보험산업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지로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현금과 계좌이체외에는 그 활용정도가 미미함.
- 보험산업이 향후 선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비현금 지급수단 다변화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나타나고, 이들의 선택은 지급수단의 특징과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음.
  - 한국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급수단의 선호도는 현금, 계좌이체 순이며 소액결제에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선호되고, 거액결제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 및 수납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 즉시 결제와 수납이 가능한 지급수단인 현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보험산업이 활성화 및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보험회사 카드, 상품권 등 선불형 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들 수 있음.
  - 선불형 지급수단은 즉시결제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미리 예치된 자금으로 보험회사 수익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전자화폐는 향후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활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본고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검토배경

- 금융거래가 복잡해지고,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현금을 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산업의 지급수단 활용은 제한적임.
- 현재 보험산업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지로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타업권에 비해 현금과 계좌이체 이외의 지급수단에 대한 활용정도가 미미함.
  -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등은 IT기술을 활용한 인터넷뱅킹,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전자화폐, 전자어음, 전자채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표1> 기관별 비현금 지급수단 분류

구 분	지급수단 활용 서비스	
은행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모바일뱅킹, 전자채권, 전자어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등	
비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예금수취기관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모바일뱅킹, 체크카드 등
	카드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금융투자회사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 등
비금융기관 (IT업체, 쇼핑몰업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자료: 한국은행 등 각종 자료

- 금융경업화 추세에 맞추어 보험산업이 선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선택,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다양한 지급수단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급 및 결제수단을 다원화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잠재 보험계약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현금 및 비현금 지급수단의 변화와 선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험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논의해 보고자 함.

## 2. 지급수단 활용 및 현황

-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이 존재하며,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어음, 수표, 계좌이체 (자동이체, 입금이체), 카드, 전자화폐 등이 활용되고 있음.
- 지급수단은 분류방식에 따라 장표·전자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장표방식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장표지로, 어음, 청구송금 등이 활용되고 있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는 각종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전자지로, 모바일 banking 등이 활용됨.
  - 대면방식 지급수단으로 현금, 수표, 장표지로, 각종카드 등이 활용되며, 비대면방식 지급수단으로 CD/ATM, 전자지로, 전자화폐, 모바일banking 등이 활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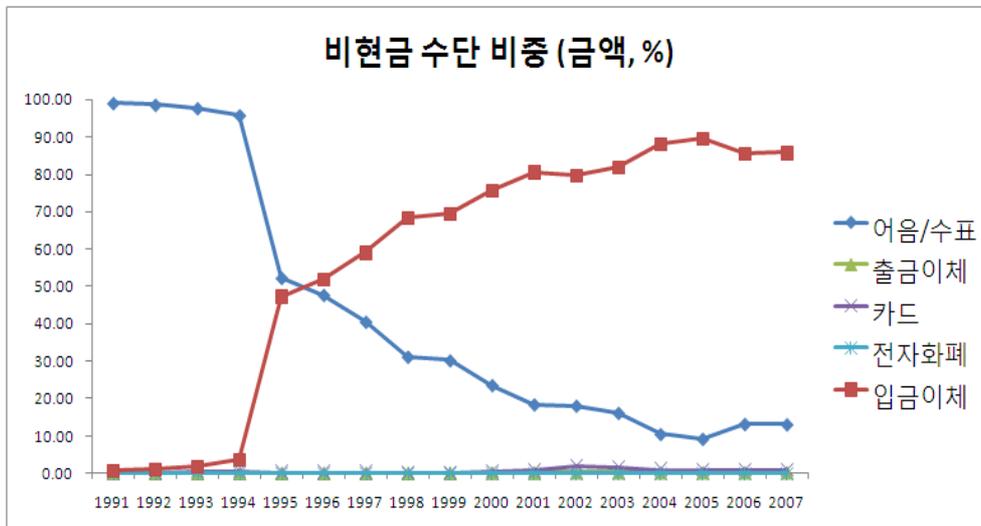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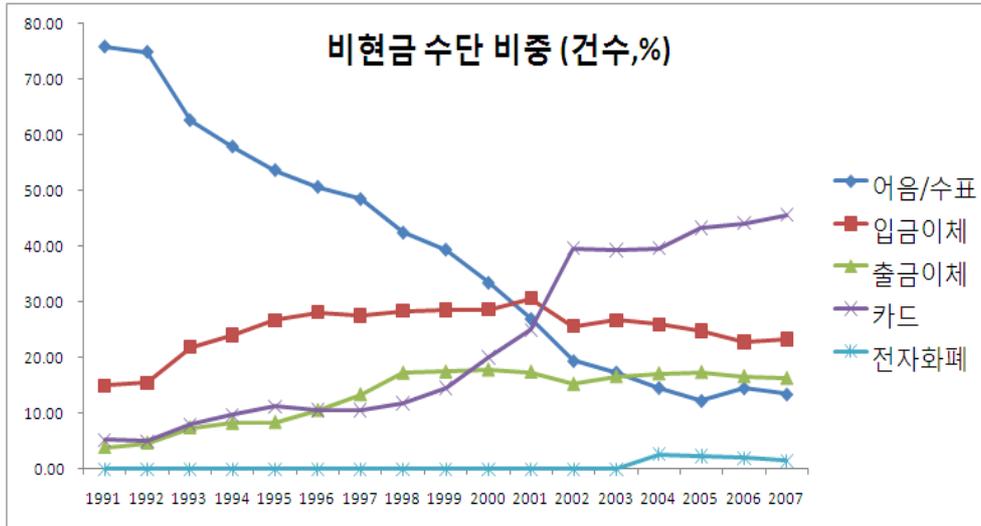
<표2> 지급수단 분류

	대면방식	비대면방식	
		off-line	On-line
장표방식	현금, 수표, 장표지로, 어음	청구송금	인터넷지로
전자방식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선불카드(Prepaid Card), 전자화폐	CD/ATM, 텔레뱅킹, 전자지로(계좌이체, 대량지급, 자동이체)	전자어음, 전자화폐, 각종카드, 모바일banking, 인터넷banking

자료: 한국은행

- 우리나라 지급수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장표·대면방식 지급수단 비중은 감소하고, 전자·비대면방식 지급수단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어음, 수표 등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자지로, 각종카드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림1> 우리나라 비현금 지급수단 건수별 및 금액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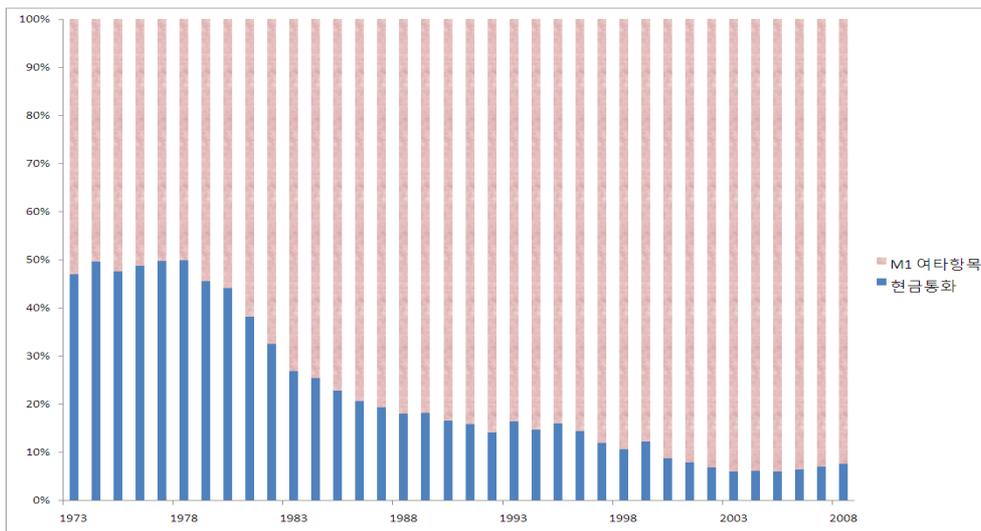
- 건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이연결제가 가능한 카드와 결제의 자동화가 가능한 계좌이체의 비중이 큼.
- 금액별 비중의 경우 어음/수표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계좌이체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3. 비현금 지급수단 다변화와 선택

- 비현금 지급수단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다변화되고, 그 비중도 늘어나면서 현금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1에서 현금통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현금수요보다는 비현금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M1은 현금통화이외에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결제성 예금을 포괄하고 있음.
-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현금통화 대비 M1 비율의 증가를 비현금 지급수단 비중의 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2> M1에서의 현금통화 비중



자료: 한국은행, ECOS

- 지급수단에 대한 연구는 1952년 Baumol<sup>1)</sup>과 1965년 Tobin<sup>2)</sup>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이 소개되고, 실증분석이 이루어짐.
- 지급수단 선택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Prescott(1987)<sup>3)</sup>, Whitesell(1989)<sup>4)</sup>, Ireland(1994)<sup>5)</sup>, 유병학(2007)<sup>6)</sup> 등이 있음.
- Ireland(1994)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M2 대비 M1 비율을 지급수단 다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음.

1) Baumol, W., "The Transactions Demand for Cash: An Inventory Theoretic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6, 1952, 545-556.  
 2) Tobin, James, "Money and Economic Growth", *Econometrica*, Vol. 33(4), 1965, 671-684.  
 3) Prescott, E., "A Multiple Means-of-Payment Model", *New approaches to monetary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42-51.  
 4) Whitesell, W., "The Demand for Currency versus Debitable Accounts: Not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21(2), 1989, 246-251.  
 5) Ireland, P., "Money and Growth: An Alternative Approac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1), 1994, 47-65.  
 6) 유병학, "화폐대용 지급수단의 확대가 현금수요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13권, 제1호, 2007, 150-179.

-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의 공존하는 이유와 비현금지급수단 선택에 대한 논의를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음.
- o Prescott(1987), Whitesell(1989), 유병학(2007) 등도 비현금 지급수단의 거래비용에 따라 지급수단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은 지급수단 이용자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o 미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sup>7),8)</sup> 지급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는 지급수단의 특징과 자신의 특성에 따라 그 선택을 달리한다고 설명함.
  - 현금의 경우 거래비용 및 수수료를 최소화하며,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결제 시 결제시점을 조정할 수 없고, 일정금액이상 보유 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함.
  - 각종 카드 및 계좌이체의 경우 결제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손실위험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시 거래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익명성 유지가 불가능함.

<표3> 지급수단 특징과 이용자의 특성

지급수단의 특징	이용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 및 수수료 (cost)</li> <li>- 결제가능 금액(limit)</li> <li>- 이용/결제가능 시간/장소</li> <li>- 소득공제/부가서비스</li> <li>- 익명성(privacy)</li> <li>- 신용정보(record-keeping)</li> <li>- 보안장치(securi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리성(convenience)</li> <li>- 안전성(security)</li> <li>- 신중지급수단 선호도(taste)</li> <li>- 인구통계학적요인: ·나이, 성별, 소득, 교육</li> </ul>

- o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지급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급수단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와 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크카드와 휴대폰 결제수단의 성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7) Schuh, S. and Stavins J. "Why Are (Some) Consumers (Finally) Writing Fewer Checks? The Role of Payment Characteristics", Working paper, No. 09-1,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09.

8) Benton, M., Blair, K., Marianne C., and Schuh S., "The Boston Fed Study of Consumer Behavior and Payment Choice: A Survey of Federal Reserve System Employees", *Public Policy Discussion Paper*, No. 07-1,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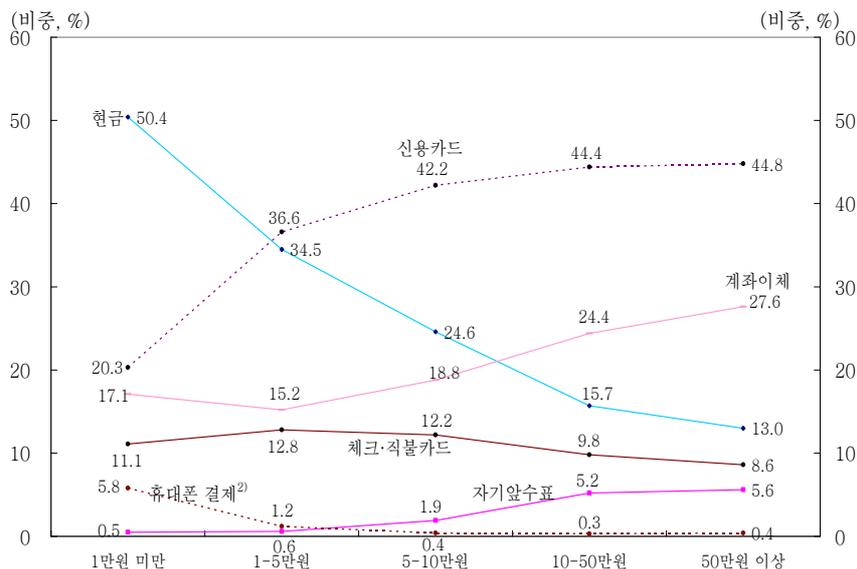
<표4> 지급수단 선호도에 따른 비중

지급결제수단	고객 비중		
	2003	2004	2005
신용카드	29.9	27.6	28.2
현금	26.6	27.2	26.1
인터넷뱅킹	10.6	9.5	11.2
은행창구 송금	5.9	6.1	4.9
체크카드	1.1	3.3	4.9
은행지로	5.7	4.6	4.6
자기앞수표	5.7	6.1	4.5
텔레뱅킹	5.6	5.4	4.5
CD/ATM 계좌이체	3.5	4.0	4.4
휴대폰 결제	1.9	2.9	3.1
직불카드	2.9	2.6	3.0
가계수표	0.5	0.6	0.4
전자화폐	0.2	0.2	0.2
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4.12,  
 \_\_\_\_\_,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6.12.

- 구매대금별 지급수단 선호도에 따르면 소액결제 시 휴대가 편리한 현금이 선호되고, 거액결제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지급수단을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구매금액대별에 관계없이 선호도가 일정한 것으로 보임.

<그림3> 구매금액대별 지급수단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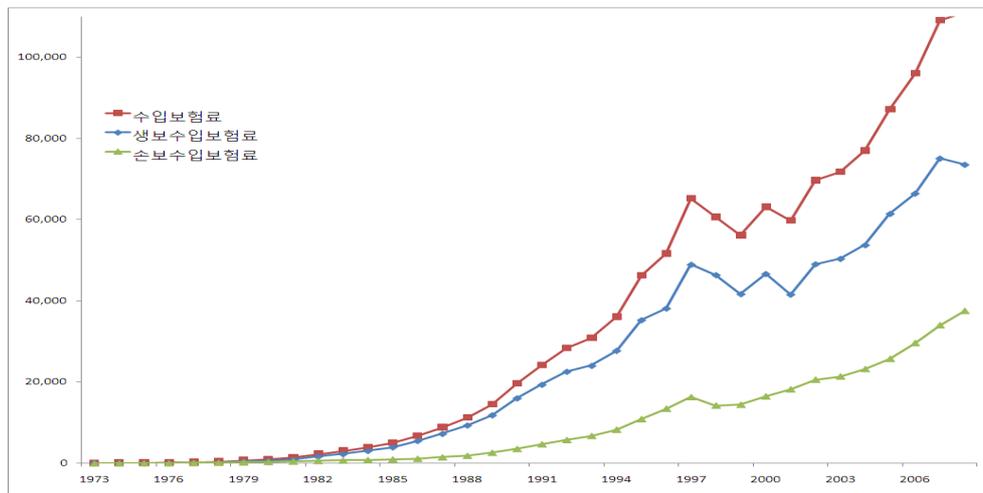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지급결제수단 이용실태 조사결과”, 2006.12.

#### 4. 보험산업 지급수단의 변화와 특징

-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FY1970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FY2007 현재 약 109조원을 기록하고 있음.
- FY2007 기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75조원,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33조원을 기록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상승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4>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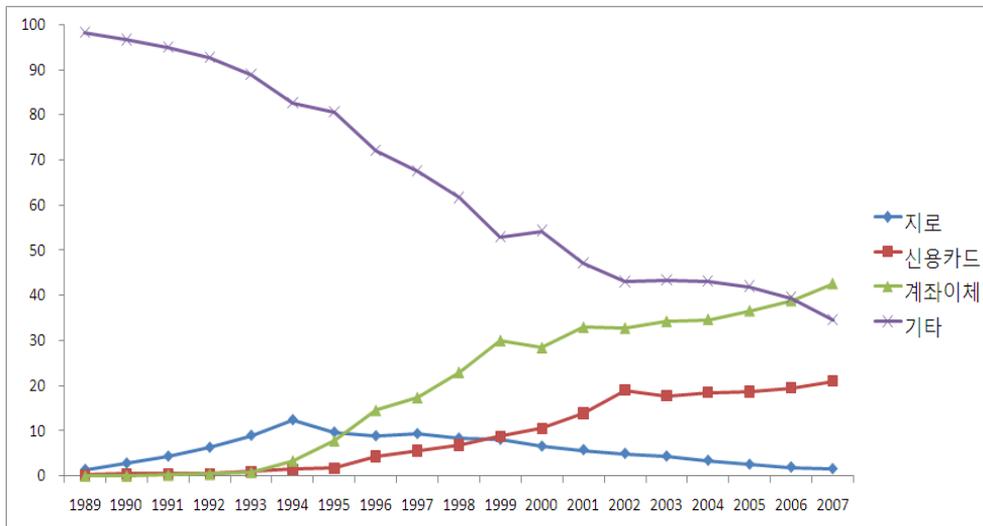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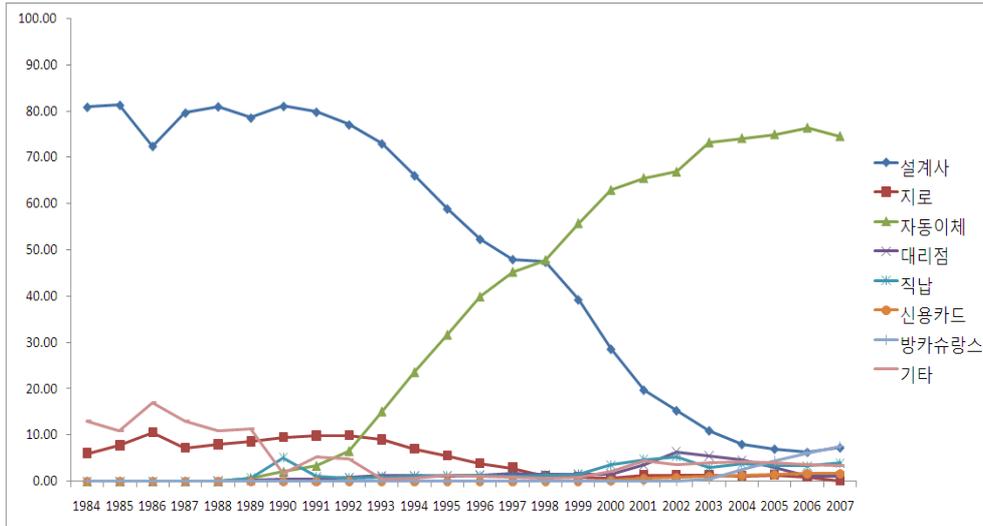
단위: 십억원



자료: 보험통계연감, 계간보험동향

-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1990년 이후 자동이체 등 계좌이체가 수입보험료 수납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2007년 현재 자동이체의 비중이 약 75%에 달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계좌이체의 비중이 약 43%에 달하고 있음.
- 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현재 21%(약 1조원)로 1.65%(약 7조원)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5> 생명보험 2회 이후와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수납형태별 비중



자료: 생명보험Factbook, 보험통계연감

- 보험계약은 초회보험료가 수납된 시점부터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지급 및 수납 수수료를 최소화하면서 즉시 결제와 수납이 가능한 지급수단을 선호하고 있음.
  - 보험료수납 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 부담이 없는 현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 하지만 계좌이체는 이체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거액송금과 신원확인에 효과적이고, 결제금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현재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수납하면서 주거래은행 및 신용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하지만 통계자료 집적 미비로 새로운 지급수단 활용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따름.

- 보험통계연감과 생명보험 Fact book 등 통계자료는 보험료 수납형태와 수납수단을 혼재하여 집적하고 있고, 집적기간도 짧아 지급수단만을 분리하여 그들이 보험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5. 보험회사의 대응과제와 시사점

□ 지급수단의 선택은 지급수단의 특징과 보험회사, 보험소비자 등 이용자의 특성이 고려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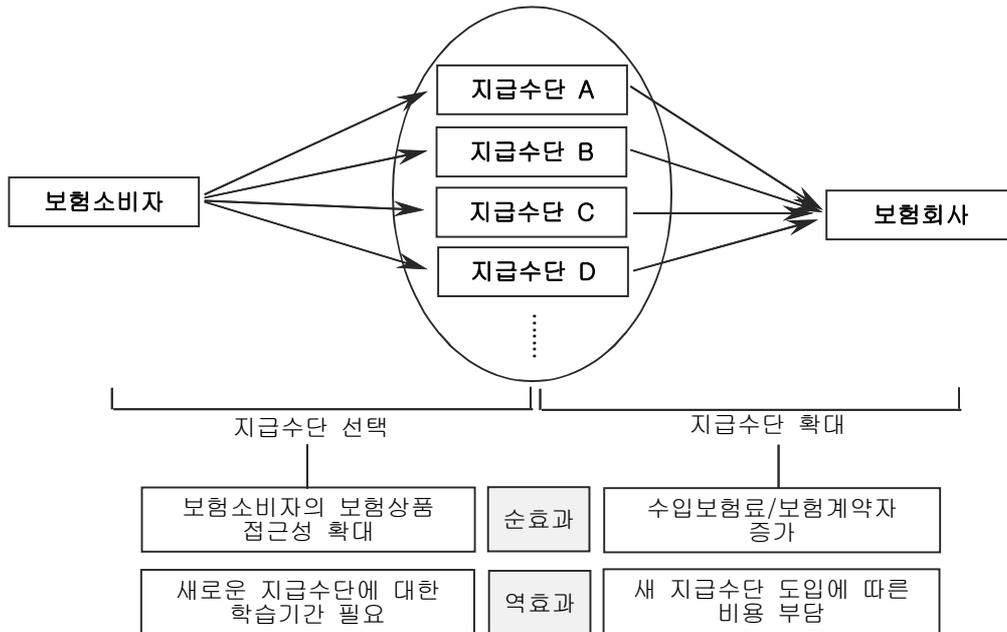
- 보험회사는 지급수단 유지에 필요한 네트워크 가입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즉시 결제가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반면, 보험소비자의 경우 편리성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급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는 결제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전자지급수단, 현재와 미래소비 조정이 가능한 각종 카드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보험회사 카드, 상품권 등 선불형 지급수단과 전자화폐를 들 수 있음.

- 선불카드, 보험회사 카드나 상품권은 선불형 지급수단으로 보험소비자가 보험서비스 구매 이전에 대금을 입금한다는 장점이 있음.
  - 결제자금이 미리 예치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즉시결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수익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향후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Ebay 등에서 활용하는 PayPal을 모델로 하여 전자화폐를 활용한 온라인 소액결제 서비스 도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지급수단 다변화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림6> 지급수단 다변화에 따른 효과



○ 지급수단 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형 또는 즉시결제가 가능한 지급수단을 먼저 활용하며 이연결제가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지급수단 다변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 그리고 이들이 보험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음. KiRi.